



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

〈보도 주요내용〉

4.5.(금) 매일경제 「한미일 산업장관 對中 수출통제 논의한다」에서는
이르면 5월에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주도의 대중국 수출
통제 수위를 높일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 중
이며,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희 (044-203-5651)

